

나주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심 환경 조성 손잡았다

공공·근로시설, 공동주택 등 주민생활공간 전자파 안전성 검증 협력



나주시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정한근)이 주민의 생활 공간 속 발생하는 전자파 피해 예방에 손을 맞잡았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KCA

대회의실에서 강영구 부시장, 권영모 KCA전파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파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공·근로시설, 공동주택 전자파 정보·측정 결과 제공', '시민 대상 전자파 안전 교육·홍보', '지자체 협력 공모사업 발굴·수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영구 부시장은 "다양한 주민 생활 공간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자파 유해성 인식 확산,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에도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자파 안심 지대로 지정된 나주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22곳, 청소년수련관 전자파 측정용 비뚤해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자파 측정정보 공개 시스템(전자파 신호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군, 풍년 기원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 펼쳐진다

17일 능주 들판·능주역사관 마당서

화순군은 13일 풍년 기원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이 6월 17일(토) 10시부터 12시까지 능주 들소리보존회원과 지역주민, 관광객, 관련 학

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능주 들판과 능주 역사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능주 들소리는 화순군 향토 문화유산 제65호로 지정되어 화순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이다. 특히 능주 들소리는 지난해 전남 민속예술

축제에서 화순군 대표로 참가하여 대상을 받았으며, 2024년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하게 될 종목으로 무형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종목이다.

이번 공연은 능주농협 로컬푸드 옆 논에서 주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면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수목원 수국, 지금이 절정

수목 테마길·외국 화목원·기후변화 테마원 등



구례군 산동면에 위치한 구례수목원에는 따스한 6월의 햇살 아래 짙한 푸른빛과 보랏빛 수국이 비단 물결을 이루고 있다. 유난히 색깔이 진하고 예쁜 구례수목원의 수국은 지금이 절정이다.

수목원 내 1km 남짓한 수국 테마길, 외국정원의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외국 화목원, 남부 수국이 주를 이루고 있는 기후변화 테마원은 수국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그늘 정원과 피크닉 가든은 편백, 소나무 등이 울창하여 더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람객이 편하게 쉬 수 있는 쉼터는 숲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가 풍부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지역에 맞는 벼 품종 개발 본격 추진

벼 품종 자체 개발 시범포 운영

곡성군이 지역에 맞는 벼 품종을 개발하고 다양한 벼 품종 비교 전사를 위해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곡성을 모천리 시범포장에서는 다수의 벼 품종 재배뿐만 아니라 품종개발 중인 계통벼와 작년에 교배된 F1 종자를 시범재배하고 있다.

이번 시범포 운영은 고품질 쌀 품종의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적합한 계통 선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품종들을 비교 전시험으로써 농업인들이 벼의 키, 수확량, 병해충 저항성 등의 생육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다양한 품종 중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의 기회로 제공되며, 최적의 벼 품종을 발굴하고 널리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벼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2~13년의 육성기간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품종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육상황과 현미 품위 검사 후 최종 선발된 벼 계통은 지역별 적을 시험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외래 품종을 대체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향미 벼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고품질의 쌀 생산을 목표로 품종개발 연구를 시작했다.

현재 곡성군의 벼 재배는 공공비축미곡 수매품종으로 지정된 새청무와 신통진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일부는 백세미 브랜드인 골든퀵3호벼, 강대찬벼, 찰벼, 가루쌀 등이 재배되고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담양군, '농특산물 활용 디저트 상품개발 공모전' 9개소 최종 선정

담양군은 최근 '담양 농특산물 활용 디저트 개발 공모전'의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지역의 특색이 담긴 디저트를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현장평가에는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32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담양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들이 평가장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심사는 현장평가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출품작에 대한 서류 평가와 전문가 평가, 소비자 시식 평가 등 현장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9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출품작에는 맞춤형 사업계획에 따른 포장재 개발, 제품 홍보비 등 디저트를 상품화와 홍보를 위해 한 곳당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호 담양군수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디저트 공모전을 계기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와 관내 디저트 업체의 매출 확대에 잘사는 부자농촌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